

# 코로나대출 70% 도소매·음식숙박업 집중

### ■광주신보 특례보증 신청 8000명 분석 해보니

업력 5년 이상 38%, 40대 신청 33% 가장 많아  
자영업자가 대부분...만기 내 상환 미지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광주지역 대출신청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몰린 도소매·음식숙박업·서비스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허리'라 불리는 40대 대출신청이 가장 많았고 업력 5년이 넘는 자영업자 신청도 최다를 나타내 코로나19발(發) 자금 위기를 실감케 했다.

1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부터 3월31일까지 48일 동안 광주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 건수는 전국 14만502건의 6.7%에 달하는 9388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은 4415억원으로, 전국(6조3000억)의 8.3% 정도다. 이 중 대출금 액은 14.3%인 634억원(1911건)이다. 1건당 3300만원 정도가 대출된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피해 대출을 신청한

10명 중 7명 꼴은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출금을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기 안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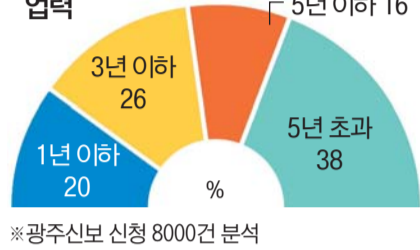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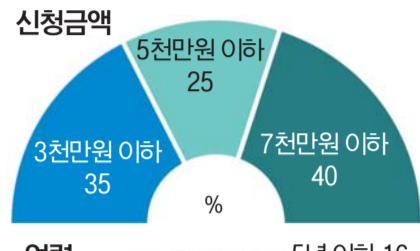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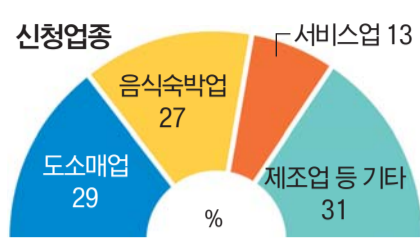
광주신보가 대출신청 8000건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29%로 가장 많았다. 음식·숙박업 27%, 서비스업 13%, 제조업 등 기타는 31%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업력 5년이 넘는 사업장이 38%로 최다를 차지했다. 5년 이하는 16%, 3년 이하는 26%로 나타났다 1년 이하 채 되지 않는 사업장도 5분의 1(20%)에 달했다.

신청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경제 허리'라 부르는 40대 신청이 33%로 가장 많았다. 50대 신청은 ▲40대 33% ▲50대 25%

대출 신청은 ▲40대 33% ▲50대 25%

###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현황



▲60대 13% 등 10명 중 7명이 중·장년층에 몰려 있었다. 이의 20대는 6%, 30대는 23%로 나타났다.

위축된 소비심리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대출 신청 금액도 상당했다. 7000만원 이하 신청이 40%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하(35%), 5000만원 이하(25%)가 뒤를 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로 나뉘면 북구(26%)·광산구(25%)·서구(24%)에 고루 분포돼 있었고, 남구(12%)·동구(13%)에는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었다.

광주신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 광주시가 지원하는 1년 치이자(2.9%)와 보증 수수료를 합쳐 최대 259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보증 신청이 폭주하면서 광주신보는 광주·하나·신한·기업·국민·농협·우리·수협은행에 보증상담·서류접수·현장실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685.46 (-69.18) ↑ 금리(국고채 3년) 1.092 (+0.022)
- ↓ 코스닥 551.84 (-17.23) ↑ 환율(USD) 1230.50 (+13.10)

### 광주은행, 기업고객 대출 서류 무방문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기업고객의 대출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방식(스크래핑)으로 실시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명,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부동산보유현황,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각종 사업신고·신한·기업·국민·농협·우리·수협은행에 보증상담·서류접수·현장실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또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광주은행은 이번엔 한국기업데이터(KED)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을 기업고객으로 확대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번거롭게 은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방문 제출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서류의 전자적 방식 제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출서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등 고객의 금융생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 1200억대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 공고

한국전력이 1일 1200억원대 '완도~제주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한전은 이날부터 5월8일까지 38일 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정지는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 25일 일원부터 제주도 제주시 삼양1동 813 일원까지 총 길이 98km에 달한다.

사업은 경쟁환경, 국가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정부조달협정 기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 여론이 일었던 중국 기업 참여 여부는 한전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입찰이 제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업 예정지는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 6월말까지 차 사면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소비자가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날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 취득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7%},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 절감분까지 더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 6월 말까지 29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조사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소비자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15년, 글로벌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5%~3.5%)됐지만, 이번처럼 세율 감면율이 70%에 달한 전례는 없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구가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사업 예정지는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 광주 1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가 하락

#### 코로나·경기침체 수요 감소

경기침체와 신규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0.11%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고 1일 밝혔다.

감정원은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늘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감소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분기보다

0.24%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0.13% 포인트 더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이 0.12% 상승한 반면, 광주는 오히려 0.45% 하락했고, 월세는 2.9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7.74%로 서울 4.83%, 부산 6.30%, 대전 7.05%, 대구 6.53%, 울산 6.05%, 인천 6.52%, 세종 4.42% 등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는 높았다.

이밖에 광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77.41%, 전세금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은 11.14%였다.

광주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분기보다



### 보해양조 코로나 위기 극복 단체 헌혈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임직원들은 1일 오전 보해양조 장성공장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헌혈을 했다.

이밖에 목포나 순천, 수도권, 영남 등 타 지역 직원들도 가까운 시설을 찾아 헌혈에 동참했다.

보해양조는 2015년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와 사회공헌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뒤 헌혈증서를 기부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돼 혈액공급 부족 현상까지 벌어져 지역 기업인 보해가 위기 극복을 함께하기 위해 단체 헌혈을 하게 됐다"며 "70년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2015년 대한적십자사 광주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2022년까지 360곳으로 확충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60여곳으로 확충한다고 1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다. 중기부는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 64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새로 생기는 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60곳과 전문 창

작과 창업 연계 기능을 갖춘 전문형 공간 4곳이다. 지난달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에는 49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4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가 구비된 창작·창업지원 공간으로, 2018년 65곳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128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해양조는 2015년 대한적십자사 광주

##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0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 시민공간으로 부활 전일빌딩 245

- 광주의 시간 새겨 리모델링, 개관 눈앞  
- 언론 1번지·문화 중심, 공간의 역사  
- 전일빌딩 245 성공을 위한 조건

문화 기획

클릭, 문화현장⑥-부산, 전주 부안청자박물관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⑥-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베를린 박물관섬

스포츠 이야기

고향팀에서 마지막 풀치는 KIA 타자 최형우

### 예향 초대석

#### 식물 지킴이,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위로 주는 '나의 나무' 심어보세요"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⑦ 작가 조정래의 치열한 창작여정 벌교 태백산맥문학관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④ 시민참여가 빛나는 디자인 도시 핀란드 헬싱키

문화 트렌드

#### 공연장이 더 친근해졌어요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개냥② 다견가정 별 달 밤이네 '함께 있을 때 충만'

전시 리뷰

#### ACC <이주 서사>전

유연준의 도시건축⑧ 종교는 공간을 원한다

세계 권위 대중문화상 수상의 역사와 의미

건강 정보

#### 가족 면역력 키우기, 봄나물을 추천합니다

사육사육 남도 한 바퀴-담양

자연, 인문 향기 쫓아 담양 새봄 여행

- 싱그런 생명, 소담한 문화  
- 상큼한 딸기, 달콤한 유과